

언캐니, 나만의 철학을 사유하다



UNCANNY는 철학이 등한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질문을 통해 철학적 사고를 장려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공간시야를 바꾸는 off-axis projection 기술을 통해 3D 공간감을 주는 배경을 제작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단순 철학 지식 습득이 아닌 사용자의 능동적인 철학적 사고를 지향하는 전시이므로 자체적으로 대화형 언어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UNCANNY는 사용자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질문을 제공하며 스스로 철학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아가 일회성의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사용자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지속적인 철학적 사고를 장려합니다.



당신과 닮은 철학자는

René Descartes



사용자는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을 중요시합니다. 졸업 및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긍정적 현실 인식을 보입니다.

사용자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취업 후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답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미 도덕적 절대주의에 대한 일말의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이는 경험과 실증적 지식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